

종조탄신 117주년 종령 법어

창종정신 계승해 인재양성에 매진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 사께서 탄신하신지 1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로써 이 땅의 민중들에게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게 하시고자 총지종을 창종하시고 교화에 진력하셨습니다. 특히 생활불교를 표방하시어 불교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단의 스승님들은 총지종의 종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대 열반 스승님들의 수행정신이 오늘의 총지종이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수행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종단의 교도 보살님들은 온전한 나를 지탱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에 있

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나를 돌아보고 깊은 관찰을 통해 수행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바세계에서 악업에 물들지 않고 선업을 지어 나갈 수가 있으며, 그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종단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를 존중하고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슬기롭고 열린 가슴으로 종단을 이끌어갈 인재를 존중하고 그러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다 같이 합심하여 노력합니다.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총지종의 모든 종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생활불교의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더욱 용맹정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정, 이 나라가 더욱 행복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 온 중생이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는 불국정토를 건설합니다.

오늘 117주년 종조탄신일을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가 함께하시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복덕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53년 1월 29일
불교총지종 종령 법공 합장

종조 원정 대성사 117주년 탄신대재 봉행

1월 29일 원정기념관, 전국 사원서 봉축과 추선



서울 역삼동 원정기념관에서 종조 탄신대재를 맞아 서울경인교구 스승들이 원정 대성사 진영 전에 훈향정공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에 지성 대종사 추대

1월11일, 제152회 승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에 지성 대종사가 추대됐다. 종단은 총기 53년(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152회 승단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지성 대종사를 종령에 추대했다.

이날 승단총회는 오는 2월 1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종령 법공 대종사의 후임을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종헌 제19조에 의거하여 제13대 신임 종령을 추대했다. 종령 임기는 2월 17일부터 6년간이다.

지성 대종사는 1946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해 총지종 창종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 종조 원정 대성사에게 밀교법과 가르침을 받았다.

1993년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수계 이후 통리원 재단 사무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총지종유지재단 및 사회복지재단 이사, 사감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0년 제16대 통리원장에 선임돼 종단 총무행정을 총괄했다. 교화와 종단 발전을 위해 진력하다 2016년부터 기로원에서 정진해왔다.



지성 대종사

종/조/법/어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가
내 마음을 닦고 밝히는 법을 세우려고 한다

지 면 안 내

4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7면 총지종의 역사

8면 경허스님의 선밀쌍수 ②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②

총기 53년 상반기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3년 2월 20일(화)~4월 8일(월)

장소 _ 불교총지종 전국사원



정각원 대전수 제40주기 추선불사

12월 28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



부산·경남교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교화의 문을 연 ‘정각원’ 대전수의 제40주기 추선법회가 지난 12월 28일 부산 정각사(주교:법일 정사)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법회는 부산·경남교구 스승들과 교도들 100여 명 동참해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동참 사부대중들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진언 염송의 참된 진리를 전수해 주시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교도들이 아

픔을 어루 만져주시던 스승님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정각원 대전수는 총기 원년에 정각사 주교의 소임을 맡아 교화를 시작했다. 총기 9년에는 통리원 교정부장을 맡아 통리원 교정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 총기 10년 부산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정각원 대전수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 밀법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 불철주야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다 열반에 들었다.

한평생 진언행자로, 신인록 보살 입적

오는 3월 12일 정각사에서 49재 봉행



부산 정각사 교도 신인록 보살이 1월 24일 세수 86세(무인생)로 입적했다. 부산 동래한서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어 27일 발인 후 고인은 울주군 선영으로 모셔졌다.

신인록 보살은 창종 초창기 정각원 스승 재시 정각사에 입교해, 일찌기 총지종의 종지 종풍을 받들며, 한평생 진언행자로 정진해왔다. 오랫동안 신정회 부산경남지회 지회장을 맡아 부산경남 교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총기 45년(2016년도)에는 효강 종령 예하로부터 노고와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받는 등 종단 뿐만 아니라 봉사와 자비회사에도 남달리 앞장서 왔다.

신인록 보살은 늘 “공덕이 있다면 모두 여러분 덕분이고, 허물이 있었다면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도들과 함께하며 신행의 모범이 되어왔다. 49재는 오는 3월 12일 정각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종조님이시여, 해탈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1면에 이어

불교총지종을 창종하고 이 땅에 한국정통밀교를 다시 꽃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제117주년 탄신을 맞아 지난 1월 29일 본산 원정기념관과 부산 정각사, 대전 만보사 등 전국 40여 사원에서 대재를 올리고 대성사의 탄신을 한마음으로 봉축했다. 또 대성사의 탄생과 행장을 소개하며 밀교의 법을 몸으로 체득하고, 불공의 길을 열어 펼친 대성사의 생전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겼다.

서울경인교구는 유가족 대표들과 함께 오후 3시 원정기념관에서 합동으로 대재를 올렸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교구 스승들과 서울경인신정회지회 박정희 지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재무부장 승원 정사의 사회와 총무부장

특경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본산 법회는 훈향정공과 헌화, 고유문 낭독, 종령 법어, 통리원장 봉행사, 교도 발원문, 마니합창단의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는 법어를 통해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로서 이 땅의 민중들에게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게 하시고자 총지종을 창종하시고 교화에 진력하셨으며, 특히 생활불교를 표방하시어 불교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우리 총지종의 모든 종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생활불교의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하자.”고 유시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봉행사를 통해 참석 대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원정 대성사님의 대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설교하고, 종조님께셔도 우리들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발원했다. 또 박정희 지회장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이시여. 항상 욕심 많고 성질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하며 종조 탄신 봉축 발원문을 올렸다. 끝으로 마니합창단의 ‘당신이 오시는 날에’, ‘부처님을 따르리’ 음성공양으로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신 봉축과 각령 추선의 마음을 더했다.

박재원 기자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원력의 등불, 정진의 등불을 켜자

총기 53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11일 본산 총지사



총기 53년 갑진년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1월 11일 본산 총지사에서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한 전국 사원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령 예하는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자.”고 법문했다.

사진=총지사 서원당 박재원 기자

부산경남교구 스승 새해 맞아 종령 예망

부산경남교구(교구장: 법일 정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5일 종령 법공예하를 예방해 신년 인사를 올리고, 가르침을 청해 환담을 나눴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 개최

1월 30일, 종단협 주최 국운융창·국태민안 염원



불교문화대축전에서 불교계를 대표해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항공양을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처님의 가피로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회원종단 대표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정관계 인사 및 사회 각 분야의 불교인 800여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같이 손을 모았다.

종단에서는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룡경 정사를 비롯한 스승들과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박정희 지회장 등 사부대중 25명이 초대되어 자리를 빛냈다.

종단에서는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룡경 정사를 비롯한 스승들과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박정희 지회장 등 사부대중 25명이 초대되어 자리를 빛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여성부, 신년하례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여성부(회장 백명숙)는 지난 1월 17일 부산 롯데호텔 42층 아스티홀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여성부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상임이사 룡경 정사, 정각사 주교 범일 정사 그리고 정각사 이상록 교도가 여성부 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수인회 새 회장단 구성



포항 수인사(주교: 범상 정사) 수인회 2024년도 새 회장단이 구성됐다. 사진 왼쪽부터 범상 정사, 신임 부회장 최민애, 총무 김예선, 우태경 회장, 정원 전수

창조론

지혜의 눈

시작과 끝을 전제로 제시된 닫힌 세계관 불교는 무시무종...현대과학 발달로 입증

어려서 궁금했던 것 중에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을까”였습니다. 그 궁금증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에서부터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할리우드에서 제작하여 영화로 널리 알려주었기에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창조물이고 인간을 제외한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은 인간을 위해 신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에 물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이런 세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불교는 붓다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열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천당이나 극락처럼 어디론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열반을 추구하는 종교는 인도 종교 중에서도 슈라마나 전통위에 있는 불교와 자이나교에 국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중시하는 흐름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색수상행식의 오온(五蘊)에서 대상이 색(色)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수상행식의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의 무게중심은 색이라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수상행식의 정신적 인식과정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십이처를 말하는데 인식주체인 육근(六根)과 인식대상인 육경(六境)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주체가 인식대상과 대등하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인식주체는 “나”이고 인식대상은 세상입니다. 저는 한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경험할 수 없으니 인

간의 인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단 “내”가 인식하는 세계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기(緣起)의 원리에 의해 중중무진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부분을 통해 전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객관적 대상은 다르지만 그것을 보는 주관적 인식행위의 과정은 모두 같다는 점입니다. 색수상행식을 인식론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원리로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인식과정을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과학을 포함해서 불교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불교신도나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닫힌 체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닫힌 체계에 해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에 내재하고 있는 신의 섭리를 아는 것이 곧 과학의 출발이었습니다. 과학은 본래 고대에는 자연 철학으로 철학의 한 분야였고 서양의 중세에서는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창조론과 결별하게 됩니다. 과학과 창조론이 병존할 수 없을만큼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종교가 아니라 과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현대 물리학의 주장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시작과 끝을 전제로 하여 성립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창조할 시간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 것이 무시무종(無始無終)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한 성인의 도덕률 정도로 생각해왔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역경은 부처님 가르침 대면하는 기회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1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5. 밀교(密敎)의 삼륜신(三輪身)

불의 권속(眷屬)은 대별(大別)해서 불(佛), 보살(菩薩), 명왕(明王)의 세가지다. 그런데 밀교는 현교와 달라서 문자불(文字佛)인 범자(梵字)를 관(觀)하고 진언을 염송하여 삼밀관행(三密觀行)을 주(主)로 하는 진실법(眞實法)이기 때문에 특히 명왕의 활동이 현저(顯著)하다.

삼륜신이란 자성륜신(自性輪身)과 정법륜신(正法輪身), 교령륜신(敎令輪身)을 말하는 것인데 자성신(自性身)은 불위(佛位)이므로 지비이덕(智慧二德)을 갖추었고 정법신(正法身)은 보살위(菩薩位)이므로 자비(慈悲)로써 섭수(攝受)하며 교령신(敎令身)은 명왕위(明王位)이므로 지혜(智慧)로써 절복(折伏)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불(佛) 법(法) 승(僧)을 비방하고 교단을 해(害)하거나 제도(濟度)되기 어려운 강강(強剛)한 증생이 있으면 이 교령신(敎令身)이 발동(發動)하여 항복(降伏)을 받는 것이다. 원래 명왕은 불법의 수호신(守護神)이기 때문이다.

여기 삼보(三寶)를 해(害)하면 안되는 전설(傳說) 몇 가지를 보면, 신라 말경에 밀교수행승(密敎修行僧)인 청대사(淸大師)가 길을 가다가 청어(淸魚)를 말에 싣고 가는 마부(馬夫)를 만났다. 대사는 마부에게 청어 한 마리를 달라고 했으나 마부는 거절했다. 그러자 몇 걸음 가다가 말이 걸음을 멈추고 가지 못했다.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부는 느낀 바가 있어서 대사에게 청어를 바쳤다. 대사는 그 청어를 바다에 방생하자 죽었던 청어가 모두 살아서 고리를 치며 갔다는 것이다.

또 위문장자(衛門長者)라는 사람은 재산이 많으나 탐욕(貪慾)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어느 때 밀교 수행대사가 여러 번 그 집에 탁발(托鉢)하러 갔으나 갈때마다 쫓겨나고 칠일째 갔을 때는 대빛자루로 치려고 할 때 대사는 손에 들었던 바루로 그를 막았다. 그러자 바루는 여덟 조각으로 부수어 저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는 그 익일부터 장자의 아들 여덟 형제는 차례로 죽어갔다. 장자는 그 탁발승(托鉢僧)이 훌륭한 대사임을 깨닫고 찾아서 참회(懺悔)하려고 결심하고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장삼암(杖杉庵)에서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에 대사가 나타나서 「죄업(罪業)도 이제는 다 소멸되었으므로 무엇이든지 소원(所願)이 있으면 되도록 해줄 것이니 말하라」하였다. 장자(長者)는 「우리 집은 호족(豪族)의 집안인데 이제 대(代)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대(代)를 잇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다. 대사는 작은 돌에 「위문장자재래(衛門長者再來)」라고 써서 왼손에 쥐어 주었다. 그 후에 위씨(衛氏) 문중(門中)에 남자가 태어났으나 원주먹을 쥐고 퍼지 않으므로 석수사(石手寺)에 가서 손 퍼기를 불공했다. 그러자 왼손이 퍼지고 작은 돌을 쥐고 있었다.

또 수학여행 중 사찰근처에서 한 학생이 돌로써 석불의 눈을 맞히고 다음날 산으로 올라 가다가 앞 사람이 숲속 나뭇가지를 잡았다 놓는 바람에 그 탄력(彈力)에 뒷사람의 눈이 맞아 그만 실명(失明)하고 말았는데 그 학생이 바로 어제 석불(石佛)의 눈을 맞춘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삼보(三寶)를 해하는 과보(果報)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으나 열거하기 어렵다.

세상 만물 부처님 아닌 존재가 없고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어리석은지라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연유를 알지 못하니 좋다, 싫다, 따지기에 급급하다. 좋으면 좋아서 들떠 있다가 흘러보내고, 나쁘면 나빠서 피하고 원망하느라 정신없다. 만나는 인연이 모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명왕신이 우리를 깨우치려는 갖가지 방편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부처님법을 만나고 익히는 과정은 저마다 다르다. 고준한 경전말씀과 우레와 같은 범문으로 지혜를 얻기도 하고, 예불소리, 풍경소리, 스승의 자애로운 미소에 이끌려 가슴이 열리기도 한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온전히 자신의 문제로 체화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여기면서도 자신의 삶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바빠서 흘러들고 어려워서 제쳐둔다. 버리라 하고 내려놓으라 하니 사실은 좀 불편하고 싫을 때도 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 그러저럭 되는대로 살아가곤 한다.

그럴 때 역경은 부처님 가르침을 온몸으로 대면하는 기회다. 나만 알고 잘난체하며 욕심내고 화내며 앞만 보고 가다가 넘어지고 보면 문득 이게 뭔가 싶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주저앉아 뉘 놓고 있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차츰 나와 타인과 세상을 돌아보게 된다.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기만 하면 어찌어찌 난관은 지나갈지 몰라도 남는 건 없다.

그러나 부처님과 보살님과 명왕신의 당체법문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잘못을 찾고 업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걸림돌에 불과한 돌부리도 옆으로 치워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발판으로 삼

으면 디딤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부는 그만큼 익을 것이고 삶은 훨씬 밝은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었던 하나의 진실을 깨우치는 기회로 삼는 건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그럼에도 가장 믿기 힘든 것이 현재 일어나는 역경과 고난이 나로 인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으면 그 결과가 확연히 보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아픈 것만 해도 그렇다. 소소한 감기나 피부, 관절, 치아 손상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넘어지거나 삔끗해서, 혹은 피로가 쌓이거나 무리했거나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다고 알 수 있다. 하지만 암과 같은 큰 병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잘못된 식습관, 가족력,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 수많은 가능성을 열거하지만 변수도 많다.

삶은 더하다. 타고나기를 가난하거나 병약한 것도 그렇고, 살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누군가의 부주의로 엉뚱하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사회구조와 부도덕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일쑤인데 그것이 모조리 내 탓이라고 한다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함부로 ‘당신의 업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몹시 거북하다.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불행에 대해 ‘전생’을 운운하고 선불리 ‘인과응보’라고 결론짓는 건 너무나도 부당하다.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고 분명한 가해자가 있을 때는 사뭇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부처님과 같은 불지견을 갖추지 못했기에 우리에게는, 타인의 간난신고를 판단한 능력도, 자격도 없다. 아무런 해안도 없으면서 어쩔지 않게 전생과 현생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금해야 한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아주 유용하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상황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는다. 온전히 환경 때문이거나 언제나 남이 문제인 경우는 없다. 설사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 해도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남을 바꾼단 말인가? 그럴 때 가장 쉬우면서도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나를 돌아보고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복잡다단한 요인들 가운데 최소한 자신에게 국한된 문제만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듭되다 보면 스스로의 능력이 나 인격이 달라질 것이고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영역도 확장될 것이다.

과거의 업을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철저히 준비하지 못해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야멸차게 대했기에 돌아오는 대가도 야박한 건 아닌지 최근의 모습만 살펴봐도 충분하다. 괜스레 막연하고 알 수도 없는 전생의 업을 따지느라 가까운 인연과보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원정대성사는 다른 무엇보다 삼보의 공덕을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강조하셨다. 삼보의 은혜와 가피를 단지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인데 공덕이 없다고 하고 비방까지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겪어보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은 비단 삼보의 은혜만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은 한둘이 아니다.

모든 범문은 바로 나를 일깨우기 위한 가르침이고 모든 인연은 오직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보살님의 진실한 현신임을 마음에 새겨본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요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 ~ 14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자신의 삶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용맹정진’

“게으른 사람들은 너무 이르다 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늦다 하여 할 일을 하지 않으며, 너무 배부르다 하여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배고프다 하여 일을 하지 않으며, 너무 덥다 하여 할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춥다 하여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출요경』

우리 속담에 ‘낙숫물이 뭇돌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단단한 돌덩이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그와 같이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은 긴 시간을 인내할 만큼의 끈기가 부족하거나, 쉬고 싶고 미루고 싶은 유혹에 지거나, 지레 겁먹고 그 가능성마저 포기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빨리, 쉽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호락호락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 불일 없어 보이는 일들도 알고 보면 수많은 인내와 노력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이란 모든 허물의 바탕이다. 집에 있는 이가 게으르면 의식이 부족하고, 사업이 쇠퇴할 것이요, 출가한 이가 게으르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집에 있는 이가 정진하면 의식이 풍부해지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요, 출가한 이가 정진하면, 법을 모두 성취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나니, 모두가 정진에 의해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흔히 은둔 종교, 허무의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불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정진론자’라고 하실 만큼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정진불교’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신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배격하고, 인간 스스로 끊임없는 수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노력없이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변해가나니, 게으름없이 힘써 정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이 비록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지만 진리에 대한 무지마저도 초극할 수 있는 것이 정진의 힘이기여, 중생의 괴로움을 초래하는 더 큰 원인은 게으름이기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남기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혜의 눈이 청정한 자는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영원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는 우둔하기로 소문난 판타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기 원정사를 나서려는데 그가 큰 소리로 울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판타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부처님, 저는 사형이 가르쳐 주는 계송을 아무리 해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형은 저더러 희망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어쩌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판타카의 손을 붙잡고 빗자루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쓸고 닦아라’, 이 구절만 외우고 생각하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판타카는 ‘쓸고’를 외우면 ‘닦아라’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며칠 만에 ‘쓸고 닦아라’를 외우게 되었고,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판타카는 드디어 이 말의 깊은 의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쓸고 닦아라라는 말은 티끌을 없앤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것으로 나를 가르치시는가. 지금 내 몸에도 티끌과 때가 있다. 나를 스스로 비유해 보자. 무엇을 없애는 것이며, 무엇이 때인가. 그래 번뇌는 때요, 지혜는 없애는 것이다. 나는 지금 지혜의 비로써 이 결박을 풀어 버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해탈되어 해탈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쁜 얼굴로 사퇴하였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지혜가 생겼나이다. 이제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착하다 비구야, 네 말과 같다. 지혜로 번뇌의 티끌을 없애는 것이다.”

이 구절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판타카가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된 내용입니다. 단어 두 개조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그가 끊임없는 정진 끝에 아라한인 성인의 대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



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자인 사람도 게으르면 어리석고 가난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노력으로 지혜롭고 부유함을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노력은 자신을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또한 무식하게 노력하면 몸만 고단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진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진이란 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수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돌아갈 항구도 모른 채 노를 젓기만 하거나 임의로만 노젓는 방법을 외는 것과 같이,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정진이란 사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일어났다면 그러한 마음을 제거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하고 건전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존재하는 선하고 착한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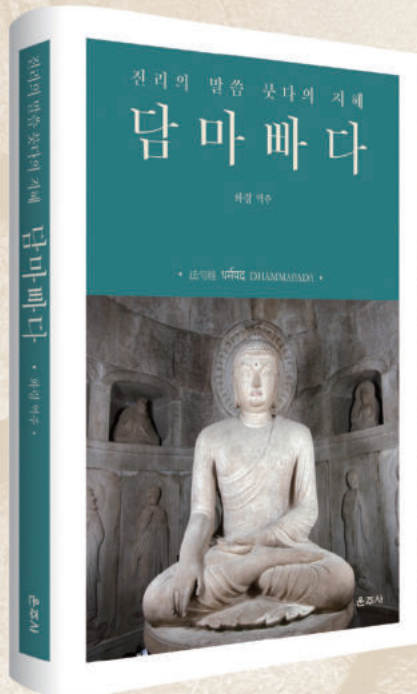
은 완전하게 개발하는데 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같은 잡된 생각이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정진이 바로 용맹정진입니다.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이 순간 자신의 삶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용맹정진입니다. 쫓돌처럼, 폭포수처럼 부단히 깨달음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용맹정진입니다.

옛 선사들은 ‘기한에 발도심한다’라고 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 따뜻하면,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수행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하는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다. 게으름의 어감은 상당히 굵튼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빈틈을 알아내는 데는 빠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그만 악이라 하여 가벼이 여기지 말고 조그만 선이라 하여 무시하지 않으며 꾸준히 악을 끊고 선을 기르는데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진을 생활화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자유와 평화의 침략에 맞서 부처님의 법으로 항거하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28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경전을 펼치면 그곳에 진리의 세계가 있으니 어느 때라도 부처님을 진경하고자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만나라는 당부였다. 당시 현교 교단 어느 곳도 통일된 성전을 갖추지 못했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대성사의 역경과 경전을 반포하는 불사는 시대를 앞서간 갑작이 된 것이다. 밀교 수행으로 산중 사찰과 출가자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수행과 수행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교의 흐름을 바꿀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경전을 우리말로 풀어 써서 누구나 뜻을 알 수 있고 마음에 새겨 실행할 수 있게 한 ‘응화성전’은 수행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지표가 됐다.

당시 불교계가 비구·대처 분쟁과 정화의 소용돌이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이끌 지도력을 보이지 못할 때 신생 밀교 종단의 이 같은 행보는 혼란한 한국 현대 불교사에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단의 체계에 맞춰 새로운 해석과 편찬을 한 것은 시대를 앞서간 일로써 대성사의 종교적 통찰력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밀교 수행자들은 어두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미래를 향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진각종은 서울로 근거지를 옮겼지만, 여전히 종단의 중심축은 대구에 있었다. 특히 종단의 발상지인 대구 남산동 심인당은 여러 모로 상징적인 곳이다. 대성사는 1954년



세계불교종단대표컨퍼런스(1970.10.10~15)-오른쪽에서 네번 째 원정 대성사

부터 남산동 심인당에서 교화하며 서울을 오가면서 교단 일에 전념했다. 서울은 교도들의 결집과 대사회적 행사가 아직은 어려운 제약이 있었지만, 대구는 언제나 종단의 결정으로 대중 집회와 사회적 발언이 가능한 이점이 있었다.

세상과는 달리 이 시절 대성사는 수행과 생활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있었다. 남산동 관사는 찾아오는 교도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다. 교도의 사정을 잘 알아 보살피고 그를 위해 불공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부터 대성사가 세운 스승의 원칙이었다.

“교도로서 병이나 급한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스승에게 알려야 한다. 스승은 그 사정을 잘 알아서 찾아가 살필 일이 있으면 찾아가야 하고, 정진해야 할 것은 정진하고 회사해야 할 것은 회사하여 모든 재해와 고난을 없애주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항상 그를 위해 불공해 주어야 한다.”

가르침 그대로 교도들의 생활을 살피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이끌었다. 불공이 필요하면 불공하고, 재앙을 물리칠 필요가 있을 때와 정진이 필요할 때를 가려 일렀다. 종교는 단순히 옛 가르침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을 구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은 끝났지만 혼란은 막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국제정세와 국내정치 상황은 전후의 평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상이지만 종교인 또한 국가와 사회의 일원인 것도 사실이다. 대성사는 일제 강점하에 겪었던 일들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국가의 운명이 혼란을 겪을 때 종교와 수행 또한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성사는 진각종의 대표인 선교로서 세상에 대한 불교적인 발언이 필요할 때마다 앞서서 지혜를 제시했다. 종단을 대표할 만한 위의를 갖추고 현실을 꿰뚫는 문장력으로 세상을 향해 종교적 가르침을 펼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958년 3월부터 일본의 재일교포 복송 움직임이 있자 전국적인 항의가 일어났다. 3월 16일 대구역 광장에 정치 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 복송반대 쉼터대회가 열렸다. 대성사는 종단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전문을 낭독하였다. 자유와 종교, 그리고 국가관은 대성사의 확고한 신념이다. 자유가 없으면 종교의 생명도 시들어간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며 자주와 자각의 근거라는 것이 대성사의 믿음이다. 자유세계의 생명이 곧 자유와 종교에 달려 있기에 자유를 억압하

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할 만한 행위를 보면 당연히 항의하는 것도 종교인의 책무라고 가르쳤다.

“만약 고귀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될 것이다. 만약 악인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바뀌어 다른 사람과 대중의 자유를 침해하고 짓밟게 된다. 그 피해와 독이 주는 폐해가 커서, 종교로서 가르쳐 인간성을 바로 잡은 후에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자유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결정해 나가는 자주(自主)이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스스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제(自制)이다. 자주가 있어야 자각(自覺)이 있고, 자제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계행(戒行)이 된다. 선을 행하게 되면 곧 자주가 바로 선다. 자제는 곧 악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자유와 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고 곧 자유세계의 생명인 것이다.”

이념과 사상의 대립으로 전쟁터가 되고 무간지옥으로 변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평화의 세계를 꿈꾸었으나 현실은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혼돈 속에서 대성사는 국가와 민족과 종교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밝혀 앞장서 나갔다.

1959년 세계 불교도들이 함께 아픔을 느낄 비극이 벌어졌다. 불교국가로서 특히 밀교 수행의 정수가 보존된 신정국가 티베트가 중국의 침략을 맞았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인민해방군은 종전이 되자마자 쓰촨성에서부터 티베트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유물론과 공산주의의 관점에 승려와 봉건 귀족들은 인민을 착취하는 계급으로, 그 자체가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티베트 압도와 감 지방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현대 무기로 무장하고 한 차례 전쟁을 통해 훈련된 병사들 앞에서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승려와 사원이 파괴되고 제14대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했다. 3월 22일 라싸가 함락되고 포탈라궁이 인민해방군의 수중에 넘어가자 대성사는 종도와 함께 대구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침략에 항의하는 결의문과 유엔과 미국 지도자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념 대립으로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대성사의 의지는 확고하였으니, 자유와 평등의 갈등에 대한 해법은 불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람들은 다 자유와 평등을 말하나 둘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개념이다. 민주국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이다. 자유와 평등은 일치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유로 우면 불평등해진다.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통제하면 부자유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통제한다. 그런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걸인이요, 가장 평등한 곳은 감옥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걸인이 되는 것과 감옥에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불교는 자유와 평등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해탈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한꺼번에 얻는다. 불교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고 평등한 가르침이 없다.”

전후 이념의 갈등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불교적인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에도 대성사는 사회적 문제를 대할 때 물러서서 방관하지 않고 불교가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방향을 줄곧 제시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방송·시민운동·사회공헌 등 한국불교 한 축으로 자리매김

총지종의 역사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1980년~1994년)
02.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대중 곁으로 더 가까이(하)

BBS·BTN 출범 건인

1990년 불교계 최초로 공중과 라디오방송이 출범했다. 전 불자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한 BBS불교방송 설립에 불교계 주요 종단이 힘을 모았고, 종단에서는 제4대 특정 종령이 초대 이사로 참여하여 방송 포교의 한 축을 담당했다. 1990년 5월 1일 불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부처님의 법음이 방송 전파를 탄 이후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승직자가 '무명을 밝히고', '지혜의 샘', '교리 강좌' 등의 불교포교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밀교의 가르침과 생활 불교 재가종단으로서 총지종의 가치를 설파했다.

불교계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 설립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종단은 1994년 발기인과 이사, 포교위원 등 주요 소임을 맡아 설립 준비의 전 과정에 힘을 보탰다. 종단에서 10억 원의 주식을 증자하고 전국 사원에서 주식 공모를 홍보하여 교도들이 대거 동참함으로써 영상포교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개최한 종단의 창교절 행사는 1995년 불교텔레비전 BTN이 정식 개국한 직후 녹화 방송되었다. BTN불교TV 이사로서 설립 초기부터 영상포교에 큰 힘을 실어준 종단은 1999년 11월 법장원장 효강 정사가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개국 이후 봉착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이사종단으로서 BBS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 BTN의 설립과 운영에 앞장서 참여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밀교포교의 영역을 개척하고 총지종을 선양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스승과 교도가 똘똘 뭉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종단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눈을 돌렸다. 총지종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에 함께 하면서 생활 불교와 호국안민의 정신을 세상 속에서 실현했다.

사회공헌활동 첫출발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에 총지종의 이름으로 함께 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발단으로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자 전 국민이 내 집을 짓는다는 일념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종단에서도 1982년 9월 22일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을 기탁하여 힘을 보탰다. 이어서 국난 극복의 역사를 알리고자 부산에서 출발하여 임진각으로 이어진 민족뿌리찾기 대행진에 종단을 대표해 당시 정각사 교무 법수원 전수가 참가하고 10월 23일 임진각에서 거행된 마무리 행사에 서울의 승직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음을 나눴다.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통리원이 자리한 역삼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4년 11월 29일 역삼동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280여 명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흥겨운 축하공연이 펼쳐지자 지역 주민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환호를 보냈다. 정성어린 식사대접을 받은 어르신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지역 사회에 문을 활짝 연 총지사에서 주민과 교도들은 흥겹게 하나가 되었다. 매년 불교의 자비사상과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해온 경로잔치는 2000년부터 강남은빛축제라는 이름으로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식사와 문화공연에 더해 이미용 서비스, 한방진료, 수지침서비스, 영정사진 촬영 등을 무



BTN불교TV 설립부터 이사 종단으로 참여해 영상포교에 힘을 기울여 왔다. 1995년 BTN불교TV 개국 기념 리셉션 효강 대종사

1981년 11월 12일 군부대 장병 위문. 군포교에 첫발을 내디뎠다.

료로 제공하고 어르신 장기자랑경연과 자선바자회 등 축제의 성격을 강화하여 지역 어르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련원 건립 준비가 한창인 괴산 지역에서는 1985년 7월 19일 영세민 가정 16세대에 쌀, 밀가루, 의류 등을 지원하고 이평리 마을회관에 비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때부터 연말마다 청천면 이평리의 어려운 가정에 성금을 전달하고 괴산문화제와 괴산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등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 1991년 여름에는 태풍 글래디스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해 수재의연금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수인사, 건화사, 선립사, 국광사 교도에게 별도로 구호비를



전달했다.

군부대 '격려와 위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군포교에 첫발을 내디뎠다. 총지종의 불공 의례를 군법당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1982년 3월 5일 육군 제1519부대에 가정 만다라 1존과 희사고, 단주, 죽비, 밀교요람, 불사법요 식순지 등을 전달했다. 10월 22일 전국의 승직자가 육군 제8587부대를 방문하여 군불자들과 함께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호국불공을 올렸다. 이후 최전방에 있는 육군 제7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으며 신병 훈련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식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군포교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경기도 양평 제0955부대 신병훈련소 법당 건립기금을 지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제7사단 전방 GOP에 점등 철탑을 제작 지원했다. 제7사단에서는 매년 승직자와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개최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군 소재 육군 제51사단 호국달마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대규모 기념법회를 개최한 후 컴퓨터, 프린터, TV, VCR, 세탁기 등의 비품과 불교총천 370권, 종조법설집 450권, 불사법요집 200권, 염주 100개 등을 기증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효강 법장원장을 비롯한 서울경인교구 소속 사원이 호국달마사 정기법회에 순회로 참여하여 삼밀의 계법을 전수했다.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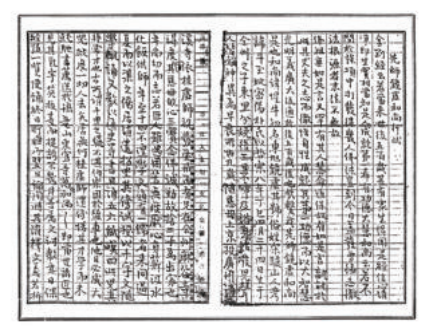
원장 김 채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경허스님의 선밀쌍수②



경허집_한암선사필사본

조선시대 선승들이 선밀겸수를 통해 반야와 방편의 쌍전을 도모한 사실은 선승들의 여러 행적과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다. 밀교에 관해 독자적인 종학을 보존할 수 없지만 조선말 무안 총지사(725-1810)가 마지막까지 버텨으로써 밀교도량의 완전한 모습을 적지 않게 보존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 불교는 일제강점기에도 도량과 의식, 재를 여전히 설행하였고 선승들의 희생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면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지난기고에서 경허는 대중들에게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을 특히 전한 사실로 끝을 맺었다. 경허는 평생에 걸쳐 많은 재와 도량을 주도하고 증명법사가 되었기 때문에 진언과 의례의 소재를 많이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선사들이 종학으로서 밀교를 어느 정도 의식했는지는 미완의 과제인 조선시대 의례집 연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경허는 선가의 주요전적인 『능가경』을 공부했다. 『능가경』은 선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장에 주의하고 능엄주를 함께 설한다. 선사로서 자신의 수행뿐만 아니라 세간 대중의 안위에 대한 방편을 아는 것도 남자의 주요 덕목이다. 때문에 『경허집』에서 선수행의 교양으로 향마진언을 외우고, 대중을 위해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의 방편도 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가의 수행은 화두를 드는 것이지만 경허는 정토수행으로서 『심요관경』의 관상수행을 다룬 장면도 나온다. 『경허집』에는, “『심요관경』에서는 관성성취법이 있어 마음을 한 곳에 묶어 두도록 하여 부처님의 형상을 관하는 것이 오랫동안 명료하면 삼매를 성취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어 “보리란 무엇인가? 바로 중생의 일상행할 중에 신령하게 아는 성품입니다. 만약 이 신령하게 아는 성품을 깨

발하여 관상삼매를 성취하거나 일심불란을 성취한다면 어찌 왕생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허는 “만약 하나의 관이 또렷하여 오랫동안 명료하면 심요관도 모두 또렷하여 오랫동안 명료할 터이니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온전한 공부를 참선하는 조사의 문중에 적용하여 수행한다면 누군들 견성성불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경허는 관상이나 간화에 대해 성적등지(惺寂等持), 즉 깨어 있으되 적적함이 함께 지속되는 삼매를 강조했고, 방편의 차이보다 수행의 내용을 강조했다.

경허의 오도는 지난호에서 밝혔지만 선수행의 특징은 인도불교와 달리 화두를 들고, 견성의 경계에 대해서도 언어와 경계를 초월한 동아시아의 독자적 문학적성을 빌린다. 경허는 성적등지끝의 오도에 대해, “이 현묘한 문을 참구하는 사람은 늘 반조하여 참구하는데 힘써서 마음을 씀이 성성하고 정밀하여 간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참구함이 지극히 간절하여 더 이상 마음을 써서 참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갑자기 마음 길이 끊어져 본명원신(本命元辰)을 밝고 이 본지풍광이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어 원만하여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라고 하였다.

선사의 원융무애한 경지는 다른 제종에서 많은 참구대상이 된 사실은 고

려말 진각국사어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경허의 경우 승의와 세속의 불이 경지를 몸소 실천하여 유명한데 밀교의 경우 이를 대략이라 말한다. 경허는 13세 동자인 경석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육처에 대해 “그 맑은 빛과 원만한 이치를 모르면 범부이고 전일하여 해매지 않으면 범부이다”라고 하였으니 세속의 분별이 자성에서 진리와 다르지 않기에 이를 깨달으면 성인의 경계임을 밝힌 것이다. 사람들은 경허의 기행만 알지만 『경허집』에는 “윤회를 벗어나려면 오로지 선정의 힘을 익혀야 한다”라고 하였고, “임종할 때 정신을 잃고 마는 것도 모두 선정의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밀교는 원교로서 선을 포용하고 화엄을 포용해야 한다. 특히 한국불교의 불자들이 다양한 공부의 방편을 섭렵해 그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불자의 포교는 화엄, 선, 정토, 밀교의 회통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경허가 어느날 상당법문한 내용에는, 「주장자를 들어서 한번 내리치고 이르기, “이 말소리가 이것이다. 일러 보라.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또 한번 주장자를 내리치고 이르기, “한번 웃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안면도의 볼물은 쪽빛처럼 푸르다”하고는 주장자를 던지고 ‘흠’이라 하시다」라고 하였다. ‘흠’은 육자진언의 결주이기도 하며, 심진언으로서 ‘열반심’을 가리킨다. 경허는 ‘흠’자 진언에 밀교와 선을 융합해 융통한 대각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선사로서 밀교의 재를 무수히 개설하였지만 의례의 격을 뛰어넘고, 말보리심에 의해 중생구제의 자비를 품었지만 현실은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 쇠망한 비극을 몸소 겪었다. 진속불이와 선밀쌍수의 결립 없던 경허선사의 행장이 혼란한 시기에 더욱 그리워진다.

남해 정사의



키아누 리브스의 기부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를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와 ‘존윅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키아누 리브스가 젊은 시절 영화 ‘리틀 붓다’에서 부처님 역할로 나왔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키아누 리브스는 ‘리틀 붓다’ 촬영을 앞두고 명상과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네팔을 여행하며 스님을 만나 말씀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는 영화 ‘존윅’ 홍보를 위해 한국에 내한했을 때 인터뷰에서 “불교 신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윤회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도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리틀 붓다’ 개봉 후 13년이 지난 시점에도 티베트의 사찰로 가서 3개월간 수행한 바 있다. 자신의 반려견 한 마리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영화 ‘존윅’을 생각하면, 평소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하기에 제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키아누 리브스는 6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오래도록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10년 넘게 신고 있던 신발이 떨어져 테이프로 감아놓은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힐일로 유명하다. 그리고 허름한 복장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자주 팬들에게 목격되었으며, 뉴욕포스트는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 ‘매트릭스’ 신작으로 벌어들인 수익 70%, 3150만 달러(약 400억원)를 백혈병 치료법 연구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키아누 리브스의 기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기부가 삶의 일부라는 것은 지속성에서 확인된다. 그는 ‘매트릭스’ 1~3편을 통해 출연료 및 성과급으로 2억 60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는데 그때도 이미 백혈병 환자, 어린이 암 환자,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보냈고 애초에 그 발생을 예방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소아암과 백혈병 연구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그가 소아암, 백혈병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에는 동생 킴 리브스가 영향을 끼쳤다. 키아누 리브스가 세 살때 아버지는 홀로 떠났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힘든 생활을 했다. 가난으로 인해 이사가 잦아 키아누 리브스는 고등학교만 4군데를 다녔다고 한다. 리브스와 킴은 이동이 잦아 친구를 사귀 수 없어 힘든시절을 함께 보내며 유독 사이가 돈독했는데, 1991년 킴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다. 킴의 백혈병은 10년 넘는 치료 끝에 완치되었다.

동생이 완치된 후에도 키아누 리브스는 계속해서 연구에 돈을 보냈고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키아누 리브스의 기부는 오랜 시간이 지난후인 2009년에야 세상에 알려졌고, 키아누 리브스는 당시 ‘레이디스 홈’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 병원과 암 연구를 돕는 개인 재단을 지난 5~6년 운영했습니다. 저의 활동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선단체에 제 이름이 거론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단체에 맡기고 있죠. 다만 저의 지명도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울겁니다.”라고 말했다.

키아누 리브스의 미담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의 스태프들이 박봉에 고생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출연료를 스스로 삭감해 고생하는 스태프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매트릭스’ 오토바이 액션 장면에 연출한 스티븐트 12명에게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선물했고, 올해 개봉한 영화 ‘존윅 4’ 스티븐트에게는 직접 제작한 롤렉스 서브마이너 시계를 선물로 건넸다고 한다.

키아누 리브스라는 이름은 ‘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라는 뜻의 하와이 인디언 말인데, 키아누 리브스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한국밀교학회 인도네시아 불적담사

6월 30일까지 선착순 25명 마감

한국밀교학회는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사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보루부드루 불교사원과 브란바난 힌두사원, 문 듯 불교사원과 세우 사원, 로미오와 줄리엣 사원, 플라오산 사원 등을 답사합니다. 보루부드루 사원은 장대한 불탑으로 세계 3대 불교사원 가운데 한 곳이며 브란바난 힌두사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술탄왕궁 물의 궁전 관람, 이조 사원 석양 감상, 그레자 아얌(닭 교회) 전망대 관람, 머라피 화산 투어, 라마야나 전통공연 관람 등이 있습니다. 뜻있는 스승님과 금강회 임원 및 신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8월 16일(금)부터 8월 21일(수)까지(4박 6일)

경비 | 245만원 (농협 024-17-001883 한국밀교학회)

신청 | 한국밀교학회 총무이사 명운(김치운) 전화: 010-5322-2746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②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생명을 존중하는 생활

청정비구와 보살들은 좁은 길을 지날 때도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는데 더욱이 손으로 뽑겠느냐, 또 어찌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보살이 중생들의 피와 고기를 취해서 음식으로 여겨 배를 채우겠느냐. 만일 비구들이 동쪽 나라에서 나는 명주실과 솜과 비단 등으로 짠 옷을 입지 않으며, 이 지방에서 나는 가죽 신발을 신지 않으며,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으며, 짐승의 젖과 젖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구들은 세상을 진실하게 해탈하여 지난 세상의 빛을 갇고 삼계에서 떠돌지 않으리라.

『능엄경』

불교에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절대적인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신이나 지옥중생까지도 모두 윤회하는 중생일 뿐이다. 다윈 이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인간이 오랜 생명의 진화의 과정에서 태어났으며 유전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과학이 이런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괴리가 크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오히려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감이 컸다. 왜 이런 괴리가 생겼는가? 그 까닭은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연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기계적인 물질로 인식하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자연에게서 느끼는 신비감이 박탈되고 자연은 단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지금도 이런 과학문명에 영향을 덜 받은 원시부족들은 여전히 자연의 신비

에 눈을 뜨고 자연과 교감하고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기계론적인 세계관과 도구적 자연관에 의해 대지를 함부로 파헤치고, 동물을 남획하고 서식지를 파괴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오랜 세월 대지에 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이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지구상에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는 멸종위기를 맞이하였다.

올 겨울 미국에서는 지독한 한파로 일주일째 99명이 사망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미국이나 유럽 등 부유한 나라에서 일으켰는데 그 고통은 주로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어서 기후 불평등에 대한 기후정의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 대륙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고 태양이나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이다. 하지만 에너지전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고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의식의 전환을 위해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기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구원의 대상이 인간에 국한되지만 불교에서 구원의 대상은 인간을 뛰어넘어 모든 존재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불보살이 구원하고자 하는 중생이란 인간만이 아니라 못생명을 말하며 생명이라 할 때도 그 범위가 태난 습화 4생과 육계, 색계, 무색계 3계의 중생을 말한다. 또한 중생에는 유정과

무정이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처럼 감정이 있는 중생만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풀, 돌, 물 등의 모든 존재가 다 중생이다. 최근에는 풀이나 나무도 감정을 느끼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기계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산업사회의 결과물로 나타난 각종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생물대멸종 위기를 극복하고 과국으로부터 못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의 세계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가능하다. 부처님은 재가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첫 번째 계율로 삼도록 하셨다. 그 이유는 자비심은 기르기 위해서인데 그 까닭은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선행 의지를 내고 선행 말과 선행 행동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주변에 선행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풀 한 포기 함부로 뽑지 않고 밟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끼는 동물을 가축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까?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일이다. 내가 먹은 음식, 내가 입는 옷, 내가 신은 신발과 내가 잠을 자고 이동을 하는 모든 순간에 못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고통을 강요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깨어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12월 카렌다

달랑 한 장 걸린 카렌다

그 무거운 것 어깨 메고 있으던

열두 장 카렌다



덕화사 조영미 교도

한 장 떨어질 때

너는 가벼웠느냐, 아쉬웠느냐

기쁜 사람이 널 쳐다볼 때 손뼉치면 웃고

슬픈 사람이 널 쳐다볼 때 같이 울었겠지

이제 와서 달랑 한 장 걸려 있으니 말이다

너의 뒤 쪽은

누구에게 연습장이 되었고

누구에게 메모지도 되었다

고맙다

계묘년 카렌다에는

전쟁도 났고, 지진도 났고, 불도 났다

그 무거운 짐

너가 다 가지고 가고

갑진년 카렌다에는

웃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다

계묘년 영원히 안녕!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원	정	기	념	관		간		현	정
리		부		세	시	풍	속		월
금	고		시	청		기		등	대
	정		가				기		보
자	비	희	사				고	드	름
	용			여	유	만	만		
독					유		장	발	장
도	독		백	지	상	태			유
새			두		종		식	응	유
우	공	이	산			지	혜		서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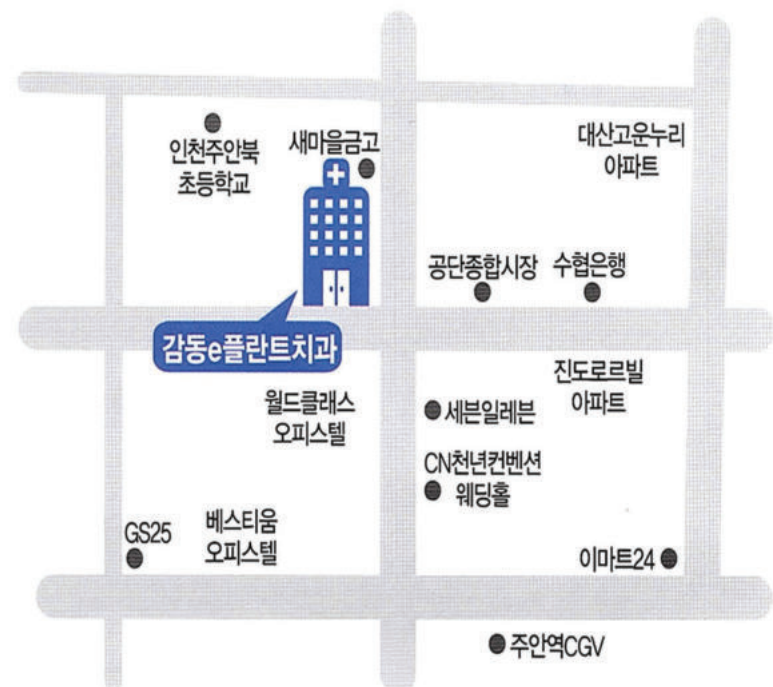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심미보철



어르신들니



사랑니발치

‘청소년문학에 싱그러운 바람 일으킬 새로운 작가 탄생’

총지사 황보나, 소설 <네임 스티커>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저자 황보나
출판 문학동네
판형 140*205 168쪽
가격 12,500원
발행일 2024년 01월 25일

총지사 황보나 씨가 소설 <네임 스티커>로 제 14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을 거머쥐며 신예 작가로 등단과 함께 수상작 <네임 스티커>를 도서로 출간했다.

황보 작가는 1987년 서울 생으로 총지사 주교 목경 정사와 범수연 전수의 자녀다. 오랫동안 총지신문의 객원 기자로도 활동하였으며, 지난 2022년도에는 종조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독후감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등 이미 재능과 신심이 겸비된 종단의 재목이었다.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을 주관하

는 도서출판 ‘문학동네’는 심사평을 통해 황보 작가에 대해 ‘우리 청소년 문학에 싱그러운 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작가의 탄생’이라고 극찬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아동청소년문학 송수연 평론가는 “소수자성을 전 시하는 데 그치는 일련의 작품들 속에서 이 작품이 갖는 윤리성은 단연 돋보인다. 소설을 읽는 독자는 물론, 작품의 주인공으로서의 청소년을 존중하는 담백한 작가의 태도 때문이다.”고 평가했으며, 소설가 윤성희 씨는 “작가의 문장 뒤에는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다.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쓰지 않은 것, 그것을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자세다.”며 믿음직한 작가의 탄생을 예고했다. 또 아동청소년문학 이선주 작가는 “읽는 내내 즐거웠고, 즐겁게 당황했다. 미움을 억누를 수는 없지만 치명상을 입히고 싶지는 않은 어떤 연약한 마음을 느꼈다. 이런 마음이 소설을 빛나게 하고 있다.”며 작품을 높이 샀다.

이번에 출간된 <네임 스티커>는 중학생 은사와 민구가 서로의 결핍을 나란히 응시하며 관찰지 않은 나날들을 관찰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다. 경쾌한 대화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여 가벼운 보폭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그 마지막에 이르러 무방비 상태의 우리에게 또렷한 감동을 안긴다. 관찰지 않은 나날들을 관찰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별하고 희귀한 자원이 아니라 이상한 존재들을 이상한 힘으로 끌어안는 이상한 사랑임을, 사려 깊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황보 작가는 가벼운 걸음으로 진

행되는 듯하다가 돌연 몽클함을 선사하는 서사, 절묘한 매력을 갖춘 등장인물의 면면, 섬세하고 위트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처음으로 청소년독자들을 만났다. 정상 범주라고 여겨지는 모습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의 형태, 성고정관념, 직업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 등 다름과 소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는 여러 설정이 등장하지만 그저 전 시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범상하게 다루어 내고 있다. 황보 작가는 <네임 스티커> 작가말을 통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산뜻하지 않음을 느낀다면 잠깐 멈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축하합니다

관성사

이타심 보살 손녀 김규리 양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		㉢		㉣		②	㉤
				③					
④	㉥		⑤㉦					⑥	
							㉧		
⑦							⑧		
				⑨	㉨				
㉩							⑩		㉪
⑪			⑫㉫						
							⑬㉬		
⑭						⑮			

가로 열쇠

- 총지중 종조 원정대상사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는 역사 기념관
- 사건이나 사도를 깨어 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 파사00
- 옛날부터 전해 오는 관습으로 계절에 맞춰 행해지는 고유 행사와 풍습
- 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을 간수하여 보관하는데 쓰는 창고
- 도의 행정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방 관청
- 해변이나 섬, 방파제 근처에 높게 세운 탑 모양의 구조물
- 한량없는 중생에 대해 일으키는 네 가지 마음
- 낙숫물이 밑으로 흐르다가 추위로 길게 얼어붙은 얼음
- 사람의 성품이나 언행이 아주 침착하고 느긋함
-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 어떠한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 먹는 용도의 기름으로 주로 무언가를 부치거나 튀길 때 쓰임
-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사자성어
-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세로 열쇠

-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 투표나 의결 등에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관세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 닭고기 토막을 기름에 튀겨 양념소스를 끼얹어 만드는 한국식 중화요리
-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음력 1월 15일
-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
- 한 도의 행정을 맡아 총괄하는 자치 단체장
-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하다는 뜻의 사자성어
- 독도 연안에서 잡히는 식용 새우
-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 윗사람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할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삼강오륜의 하나
-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최고봉 해발고도 2,750m
- 쌀밥에 엿기름가루를 우린 물을 부어 식힌 뒤 단맛이 나도록 만든 음료

석관실버센터, 제주에서 직원 연수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지난 1월 8일~10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2024년 상반기 직원연수 스마일투게더」를 실시했다.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열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 원 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통 리 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 성 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 인 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 천 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 룡 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 법 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 지 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 심 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 인 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 지 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 보 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 황 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 정 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교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 국 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 원 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 천 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 화 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 광 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 음 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326
선 립 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510
수 계 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 인 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 천 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 석 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 음 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 향 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 화 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 행 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 성 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 밀 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 화 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곡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 보 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윤 천 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 상 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 석 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 각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 음 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 해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비로자나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과 위드다르마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금은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학사업 등
사회 그늘진 곳에 자비의 손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드다르마는 매월 불자와 일반인을 비롯해 군, 교도소 등으로 보내져
교화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정성 잊지 않고 용맹정진하겠습니다.

강동화 강명순 강숙자 강승민 강점이 강태관 마경덕 공덕성 곽방은 구미자 구지영 구지원 구지혜 김경희 김광혁 김동운
김라은 김병석 김선희 김용기 김장환 김재영 김점남 김정환 김정희 김지은 김진화 김평석 나석원 남영애 노점호 단음사
신정희 대안화 덕광 덕화사 신정희 도우 록경 묘심해 묘원화 무명씨 밀공정 박대성 박미경 박성호 박순연 박옥자 박주희
박필남 박현정 반야심 반야화 백귀임 법등 법상 법상인 법선 법수원 법지원 보명심 사홍화 상지화 서령 서이안 서이준
선도원 성화사 신정희 손태광 송인근 수인회 수증원 승원 승효제 시각화 시법 신막심 신말심 신성희 신현태 심명자 안금순
안주화 안한수 연등원 연명구 오선혜 우인 원당 유선호 유승우 유은혁 유지영 유지호 이경동 이도현 이루나 이민선 이상채
이서유 이서현 이성미 이수형 이순영 이순옥 이영애 이종구 이주용 이지희 이진승 인선 일성혜 임명재 자비연등 자선화
장정숙 정계월 정동숙 정석규 정우석 정유빈 정윤영 정정희 조성기 주신제 지현 지홍 지희심 진금선 진여 진일심 총지화
최상관 최영미 최영아 최유정 탁상달 하명순 하명순 하재희 하현정 한영란 해정 해광 해봉 해원정 홍도열 홍춘자 황성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자 이상 가나다 순>

강정자 공덕성 김미경 김윤서 공재호 김종철 법공 보명심 성화사 신정희 안한수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우인 이경옥 이수영
이시에 이영희 이옥종 이인성 이재길 이종성 이해성 이태남 자선화 정법계 정화연 주건우 총지화 한미영 한철수

<위드다르마 후원 이상 가나다 순>



불교총지종